

ISSUE & FOCUS

Newsletter 2015-5-2

대한민국 호,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한민국 호가 흔들리고 있다. 앞에는 풍랑이 너울대고 있다. 여기저기서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혁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몸짓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판을 바꾸는 변혁, 국가개조에 대한 요구이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은 산업화·민주화로 대변되는 근대화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 시대를 열라는 역사의 함성이다.

지금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구시대로 회귀냐, 새로운 시대로의 진출이냐 라는 갈림길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1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참사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나타난 현상이 그러하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그 자체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던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키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도덕도, 예의도, 질서도 무너져 버렸다. 염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 앞은 보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고 현실에 안달하며 갈등하고 싸운다.

우리 사회에 활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믿음이 가라앉고 있다.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루어보겠다는 도전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 힘이 빠지고 지쳐있다. 정치와 정부의 무능,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경제침체의 지속, 청년실업, 고령화-저출산, 빈부격차 확대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심화가 그러하다.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군

대나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은 여기에 부채질한다. 종교나 문화계 역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모두 중심을 잃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가 운영책임을 진 정치권과 여론을 빌미로 한 언론과 사회지도층이다. 그런데 누구도 내 책임이요, 나부터 고치겠소! 라고 자성하는 곳이 없다. 그러다보니 갈등과 대립은 여전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최근 해외자원개발투자 비리 수사로 시작한 정부의 사정 칼날에 한 기업인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작성한 문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현직 총리가 낙마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그렇잖아도 동력이 떨어진 정부가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중첩돼 몰려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노사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규제개혁 등의 난제들은 표류하고 있다.

혼돈은 변화를 알리는 시그널이다. 변화에는 저항이 따른다. 저항이 무서워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항은 기득권자들의 몸부림이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외면한다. 기득권 세력의 공통된 점은 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우김질이다. 변화의 조짐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렇게 만든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이들과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긴다. 혼란은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사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중된다. 여기에 이념의 문제까지 끼워들면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는 물줄기와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 한다.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서 넘실대고 있고 국민들은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애써 그 변화를 외면한다.

혼돈은 새로움을 잉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를 열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다.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정부를 지원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를 극복한 뒤에는 위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고 IMF 외환위기가 그러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혼란은 새로움을 잉태하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인다.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인다.

오늘의 희망은 새로움에 대한 갈구다. 그 갈망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라는 것이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발전의 동력이다. 지금 그 힘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우리 앞에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물줄기가 넘실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물줄기가 조금씩 솟아나고 있다. 언제 큰 물줄기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변곡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역사의 나침반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미래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면 통일도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 희망의 미래로 나가려면 우리는 오늘날 주어진 총체적 위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개혁은 사명감과 희생정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다 넓은 시야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실천 전략을 짜서 빈틈없이 추진해나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리더십은 위기일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리더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하여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 잡고 국민과 함께 국가개조를 위해 나가야한다. 국가개조의 시작은 권력기관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 전체로 파급되고 나아가 민간부문에까지 개혁의 행렬에 동참하는 동인이 된다.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곳은 정치권이고 개혁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할 곳도 정치권이다. 우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은 부정부패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규를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감시도 따라야 한다. 총선, 대선시 당내 후보 경선과정 선거비용은 본선 과정 비용 못지않게 들어가지만, 감시와 관리가 허술한 게 사실이다. 선거부패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당이 투개표 과정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선과정부터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도 따라야 한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기득권 양당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제3정당의 등장이 가능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에서 능력중심의 검증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포퓰리즘 정치와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정치와 정책경쟁을 유발하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행정도 개혁돼야 한다. 개혁 정책은 여러 개를 펼치다 용두사미로 끝나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연금개혁은 말로만 하는 개혁,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재정절감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시작은 했지만 아직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마무리 져야 한다. 나아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와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높여 공무원 사회에 창조적 혁신이 솟아나도록 해야 한다.

사법절차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재판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줄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는 사법정의도 공정한 재판도 기대할 수 없다. 차제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으로 국민의 법의식을 일깨우고 준법정신의 고양으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이는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가개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패하면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국가개조의 항해 중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흔들리지 않고 독심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는 힘을 보태지 못할망정 비아냥거리서는 안 된다. 추진 세력은 분열하지 말고 서로 감싸고 인내하면서 밝은 내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분명 우리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면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는 물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각오로 해나가야 한다.